

# 뇌졸중①

편집부

## 1.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의 피순환장애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다는 뜻가, 운동마비가 되어 쓰러지는 경우, 뇌졸중(腦卒中)이란 말을 씁니다.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맞았다는 뜻으로 중풍(中風)이라고도 표현해 왔습니다.

중풍이나 뇌졸중은 같은 말입니다. 모두 이는 뇌혈관의 병변(病變)으로 뇌의 기능장애를 갑작스럽게 일으키는 경우,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풍이나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뇌혈관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이란 말은 한방에서 쓰고, 뇌졸중은 양방에서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뇌졸중이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뇌혈관장애는 주로 갑작스럽게 오고 한쪽팔, 다리를 못쓰고, 의식을 잃는 등 심한 증상을 보여 뇌졸중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중에서 아주 가볍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아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신경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의식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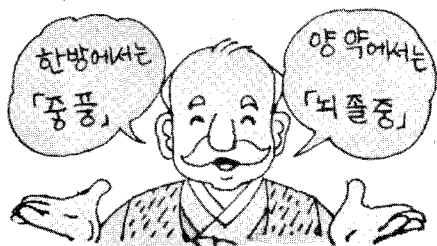
이러한 뇌혈관질환은 최근에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질병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질병에 의한 3대 사망원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뇌혈관질환은 한번 나타나면, 후유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 직장과 인척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도 많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부담을 주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뇌혈관질환이 왜 생기며, 어떤 증상을 보이고,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크게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뇌졸중은 왜 생기는가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와 터져서 생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밖에서 관속으로 들어간 여러가지 유리물이, 혈액이나 혈전에 의하여 흘러가다가 관내에 막혀, 관강이 막히는 증상)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뇌색전증」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뇌조직을 상하게 하여 경색(梗塞: 혈액중의 유리물이나, 혈전이 혈관의 내강을 막아 그곳에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 이하의 조직이 영양을 받지 못하여 사멸하는 상태)을 일으켜, 같은 변화를 보이므로 이를 합쳐 뇌경색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경색증은 뇌졸중의 70~8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뇌혈관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여 막히게 되는 뇌혈전증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뇌혈전증은 50대이후의 노령층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데 특히 60~70대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노인에게서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뇌혈전증이 노인에게 흔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뇌혈전증은 오랜동안 뇌혈관벽에 혈전이 생기거나 뇌혈관 전체에 광범위하게 뇌동맥경화증이 있어서 뇌혈류의 원만한 유통을 방해하게 되어 뇌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탈락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구 분	주 요 증 세
폐색성뇌혈관장애 (뇌경색증)	○뇌혈전증: 뇌혈관 자체가 막힘 ○뇌색전증: 뇌혈관 이외의 혈관으로부터 마개모양의 색전이 뇌혈관으로 들어와 막힘
출혈성뇌혈관장애	○뇌출혈(뇌일혈): 뇌실질 안으로 피가 터짐 ○지주막하출혈: 뇌실질 밖의 지주막하강 안으로 피가 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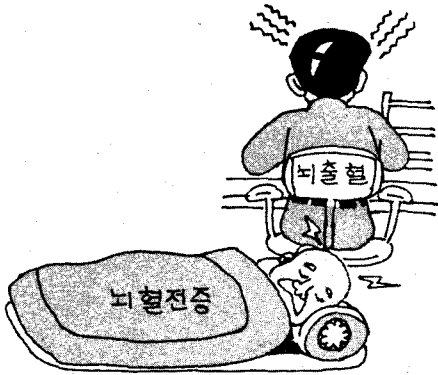
#### \* 폐색성뇌혈관장애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 「폐색성 뇌혈관장애」라고 합니다. 폐색성뇌혈관장애는 다시 뇌혈관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하여 막히게 되는 「뇌혈전증」과 뇌혈관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데 뇌혈관 이외의 혈관으로부터 마개모양의 색전(塞栓症: 혈관순환 속에서 생기거나 또는

#### \* 출혈성뇌혈관장애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 「출혈성뇌혈관장애」라고 합니다.

출혈성뇌혈관장애는 뇌실질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경우와 뇌실질 밖의 지주막하강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뇌경막 안팎으로 피가 터져 고이는 경막상혈종과 경막하혈종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머리의 외상 등 타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외상 없이 자발성으로 나오는 뇌혈관장애에서는 제외됩니다.

피가 뇌실질 안으로 터지는 경우 뇌출혈이라고 하고 지주막하강으로 번지는 경우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을 향간에서는 뇌일혈이라고도 부르는데 앞의 뇌경색증을 뇌빈혈로 부르는 것과 대응하여 일상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주로 혈압이 높은 분들이 무리를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뇌혈전증은 쉬고 있을 때나 자고 난 뒤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뇌출혈은 낮에 한참 일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오는 수가 많습니다.

이 뇌출혈은 뇌혈전증 다음으로 많이 생겨서 전체 뇌졸중의 20~30%를 차지합니다.

십여년전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뇌혈전

증보다 뇌출혈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 의사들이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잘못 진단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래 일본에서 정밀하게 뇌졸중 환자를 검토한 결과 역시 뇌혈전증이 뇌출혈보다 비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뇌출혈은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40~50대의 장년기에 많이 생기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경우, 특히 동맥류(動脈瘤) 등이 있을 때, 동맥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맥류는 동맥의 일부분이 파리모양으로 부풀어 있어서, 번비가 심한 사람이 힘겨운 용변을 본다든가, 무거운 짐 짊어 든다든가 하여 갑자기 압력이 그 동맥에 가해지는 경우에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류는 뇌저부분의 뇌동맥에서 잘 생깁니다.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질환이라든가 염증등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곳에서 색전이 떨어져나와 뇌혈관쪽으로 흘러들어가 그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색전은 심장 이외에도 골절환자나 심장수술환자, 그밖의 몸안의 여러 질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색전증은 노인이 아닌 어린아이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출혈도 역시 젊은 나이에 생길 수 있는데, 뇌색전증과 지주막하출혈은 앞서말한 뇌혈전증이나 뇌출혈보다는 그 발생빈도가 훨씬 낮아서 뇌졸중환자의 10~20%를 차지하는데 불과합니다.

(다음호에)